

남한산성 鐘과 鐘閣 복원을 위한 연구

이진향* · 김대호* · 이재근**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s of an Bell Chamber in Namhansansung

Lee, Jin-Hyang* · Kim, Dae-Ho* · Lee, Jae-Keu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an historical area is getting increased in these days, the reconstruction of an bell chamber in Namhansansung has significant historial, educational and cultural mea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a study on an bell chamber in Namhansansung, is to assume an original location of the bell chamber and identify the size and shape of the original bell chamber through literature study, site inspection, and analysis on old maps. In addition, this study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when new bell chamber i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literature study, site inspections(5 times) and analysis on old maps, the original bell chamber is assumed to locate near current Oroji tea house at the rotary, where was in the area of Hanggung. With regard to the traffic system, it is assume that there was an old road along with the current local road No.342 connecting the South Gate with North Gate and a Y or T shape intersection connecting the site of old bell chamber with the north. In addition, there was a government office street from the old bell chamber to Hanggung. The shape of old bell chamber is assumed to have Paljak or Woojingak roof. Samo roof was not found in all the five maps. Regarding the direction of bell chamber, three maps indicate that it faces the East and two maps show that it faces the South.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length and width of the roof have similar size. However, a new bell chamber should face the East, which is the same direction with Hanggung.

As there is a record which states that a bell in the Cheonheongsa, Seonggeosan, Cheonan was used as a Namhansansung's bell when the Cheonheongsa was closed, this study suggests that new Namansansung's bell should be built, considering histoical value and artistry of Cheonheongsa's bell.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the reconstruction of Namhansansung in 2009. However, as reconstruction of historical assets should be based on thorough historical evidences. Therefore, more detail researches by a indicator analysis are left for the topic of future studies.

Key Words : Namhansansung, Bell Chamber, Cheonheongsa's Bell, Old Maps

국문초록

역사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남한산성의 종각 건립은 역사적 교육적 문화적 의의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남한산성 종각에 관한 연구로 문헌조사, 현지조사, 고지도 분석을 통해서 종각의 위치를 추정하고, 종과 종각의 규모와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현대에 종각을 재현할 때 자료로 삼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Lee, Jae-Keun, Dept. of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Cheonan 330-720, Korea. Phone : +82-41-550-5302, E-mail : jklee@smu.ac.kr

문헌조사, 5회에 걸친 현지조사, 고지도 분석 결과, 종각의 위치는 행궁권역의 초입인 로터리 내 지금의 오로지 찻집 부근 혹은 백제장 주차장 부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체계는 남문과 동문을 연결하는 308번 지방도와 종각지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Y 혹은 T형 교통체계의 옛 길이 있었으며, 종각에서 행궁으로 진입하는 관아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종각의 모양은 팔각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이며, 5개의 지도 모두 사모지붕은 보이지 않았다. 종각의 방향은 동향이 3곳, 남향이 2곳인 것으로 보아 가로 세로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로 3칸, 세로 2칸, 총 6칸의 건물이며, 종각의 방향은 행궁의 방향과 같은 동향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좋은 천안 성거산 천흥사에 있었던 종이 천흥사가 폐사되면서 남한산성의 종으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천흥사 종의 역사성·예술성을 고려하여 남한산성의 종의 제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2009년 남한산성 종과 종각의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그러나 문화재는 철저한 고증에 의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정밀한 연구는 지표조사에 의해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주제어 : 남한산성, 종각, 천흥사종, 고지도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생활터전이었으며,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외세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다(경기농림문화재단, 2008). 한강과 도성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한국사 전개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삼국 통일 이후 당이 백제와 신라 땅을 넘보자, 신라의 대당 전쟁에서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몽고의 침입을 격퇴한 것이다. 한말에는 의병항쟁의 중심지였고, 일제강점기에서는 치열하게 항일 투쟁이 전개된 역사의 현장이다(경기농림재단, 2008).

남한산성은 이러한 역사적·자연적·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1963년 국가사적 57호로 지정되었으며, 행궁은 2007년 사적 470호로 지정되었고, 1971년 산성과 부근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한산성은 산성 수축의 완료와 함께 광주 읍치를 남한산성에 이설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초기 약 300호 정도였으나 조선 말기 1,000여 호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제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17년 광주 군청이 경안리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1960년대 산업화의 여파로 산성주민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쇠락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관광객의 증가는 관광기반시설을 필요로 하였고, 행궁지 접역에 산성호텔 건립, 동문과 남문의 차량 진입을 위한 성곽 철거, 터널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동문 안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문화재는 물론 역사경관의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관광수요의 증가에 편승한 관광음식점들의 증가와 대형화도 남한산성 역사경관 파괴의 원인이 되었으며, 옛 산성의 중심거리였던 종각지 주변도 먹거리 위주의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행태의 위락지로 변모하여 종각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나, 다행히 2000년대 이후 남한산성의 역사

적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남한산성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7년 광주비전 2020 기본계획과 2009년 남한산성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남한산성의 단계별 추진계획 중 1단계 사업으로 행궁권역 정비 완료 및 종각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역사문화경관은 인공적인 도시경관과는 달리 한번 훼손하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남한산성 종각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종각이 있었던 지금의 로터리 부근이 종각거리로 불리고 있다. 남한산성 행궁 복원과 함께 남한산성 종각의 복원은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포함한 역사문화경관 복원에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역사문화경관에서의 문화재 자체만을 중요시하여 보존·관리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까지도 문화재와 함께 보존·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재 주변지역의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기준을 근거로 보존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한산성 종각의 복원은 상징적 의미에서 혹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산성 종각을 복원하기 위하여 종각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 종과 종각의 모양과 규모는 어떠한지 알 수가 없다. 특히 종각을 복원할 경우 종각이 있었던 주변의 현황(주변 상가와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남한산성 종각 복원을 위하여 종각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정확한 위치가 규명되지 않을 경우 타당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 종과 종각을 세울 경우 종과 종각의 형태와 크기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종과 종각을 세울 경우 주변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한 계획인가를 연구하여 산성마을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로터리 지역이 전통역사경관으로서의 옛 종각거리의 이미지를 찾기 위하여 종과 종각의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남한산성 종각지의 위치를 추정하고, 남한산성 종의 제원으로 알려진 천홍사 종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며, 천홍사종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게 된 경위를 추적하고, 남한산성 종각거리의 교통체계를 분석하여 종각 복원 시 주변 환경을 계획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80번지 일원으로 평균고도 350m, 경사가 5% 미만으로 완만하며, 예부터 종각거리로 불려 왔다. 지금은 로터리를 중심으로 남문과 동문을 연결하는 308번 2차선 지방도도가 통과하고 있다. 대상지 북서쪽으로 행궁과 남한산성관리소가 위치하며, 침괘정 지역까지 고도가 높고 숲이 우거져 대상지가 위요된 경관으로 보인다. 지금은 행궁복원사업과 관아거리를 따라 공원조성을 위한 발굴 작업과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북쪽으로는 북문으로 향하는 길



그림 1. 로터리 입지



그림 2. 로터리 현황

양편에 찻집 음식점 등 근대 변형된 한옥양식의 상가가 위치한다. 남문과 동문 방향으로는 시각적으로 탁 트인 파노라미한 경관이 펼쳐지고 있으나, 남문주차장과 로터리 주차장의 자동차로 인하여 역사경관을 해치고 있다. 현재 종각지 주변 교통체계는 로터리 형식으로 로터리 내부의 반지름이 약 19m이며, 시설물로는 화강석 비석 '자연보호헌장'(6.5m×4.5m)과 종각 추정 표지석이 위치한다. 로터리 주변 식생은 산벚나무, 청단풍, 무궁화과 조형향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은행나무 가로수와 조형향나무의 정형화된 수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으로서의 로터리 지역을 제외한 남한산성 전체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남한산성 종각 관련 문헌과 각종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친 현지 답사를 통해 주변 경관분석, 교통체계 분석, 교통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한산성 종각의 위치 추정을 위하여 고지도 중 종각 부분의 식별이 가능한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1872년 지방지도 광주전도', '해동지도 광주부', '해동지도 남한산성', '지승 광주부' 영남대학교 소장의 현존 남한산성 고지도 중 가장 상세한 '남한산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 밖에 종각 주변 옛길에 대한 고증을 위하여 '1912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1918년 광복이전 지형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남한산성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성거산 천홍사 종의 예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이동 경로에 관하여 추적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종과 종각

좋은 고대 중국의 은대 말기부터 동종이 제작되었으나, 주로 제사에 쓰이는 악기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불교의 융성과 함께 실용적인 기능에서 중생제도의 종교적 기능도 지니게 되고, 뛰어난 공예로 발전하게 되어 범종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범종은 중국 범종이나 일본 범종과는 달리 독특한 형태와 양식을 가지고 신라시대를 시발점으로 조선왕조까지 각 시대별 특징과 양식, 사상성을 가지고 전래되어 왔다. 한국의 범종은 용뉴에서부터 종신의 각 부분에 이르기까지 금속공예가 총집합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문양의 다양성과 비천상, 보살상, 여래상의 율동성 있는 질감과 다양함 그리고 당좌 등에서 볼 수 있는 조각의 화려함과 위치의 선정, 범종의 주조 기술과 합금 기술 등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 한국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용뉴와 음통 부분이다. 중국과 일본 종은 쌍두용을 걸개로 사용하였으나, 한국 종은 단룡을 걸개로 하고 옆에 음통을 두

었다. 종각은 종을 보관하는 건축물이다. 마룻바닥이 지면에 높
이 떨어진 다락집일 경우 종루라고도 한다.

산성 종은 지역주민 또는 일반인에게 공적으로 시간을 알리
거나 비상시 신호체계로, 혹은 지도층의 권력의 상징이나 부장
품으로 사용되었다. 종의 위치는 성곽 내에서는 성의 중심적인
곳(서울 보신각종, 수원 여민각종)에 성문 옆에는 성 위(전주
풍남문 종각)에 설치하였다.

유물번호#덕수궁 2445
동제종
광주군 남한산성 종루 전래(傳來)
명치 43년(즉 1910년) 7월 28일 요시다 쿠스메 (吉田九助)로부터 구입품 (279圓 70錢)
고(高) 174.2cm
구경(口徑) 96.4cm

그림 5.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카드

2. 남한산성 종의 제원

남한산성의 종으로 알려진 천흥사 종은 고려 초기의 종으로
통일신라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변화를 준
고려시대 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종이다. 종을 매다는 고려
인 용뉴는 한 마리의 용과 대나무 음통을 지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형태가 신라종과 닮았으나, 용의 머리가 쳐들려
진 점과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점은 신라종에서 변화된 부분이다.
종 상하의 종견과 종구에는 당초무늬나 보상화무늬의 섬세한
무늬대가 형성되어 있고, 종견의 무늬대에는 네 곳에 대칭으로
네모꼴의 유곽이 있으며, 유곽 안에는 9개씩 모두 36개의 유
(乳)가 있다. 종신에는 종을 치기 위한 당좌가 구획되어 있고
비천상이 부조되어 있다. 이 종의 특징은 몸체에 위패 모양을
만들어 명문을 새겨 놓았는데, 『聖居山天興寺鐘銘統和二十八
年庚戌二月日』(성거산천흥사종명통화이십팔년경술이월일)
이라는 글귀가 있어 고려 1010년 천흥사에서 제작된 종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패모양의 장식은 고려시대 범종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이다.

남한산성 종의 종각에 대한 자료로는 <한홍엽(韓紅葉)>에
실린 사진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홍엽(韓紅葉)>『탁지부건축
소, 1909』에 실린 남한산성 종의 사진을 보면 ‘광주종각천흥사
종’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종 너머로 종각의 기둥과 홍살로 막
힌 벽을 볼 수 있다¹⁾.

종각의 규모는 광주부 읍지에 ‘鐘閣 六間’으로 표시되어 있
으며, 남한산성도에서 중앙에 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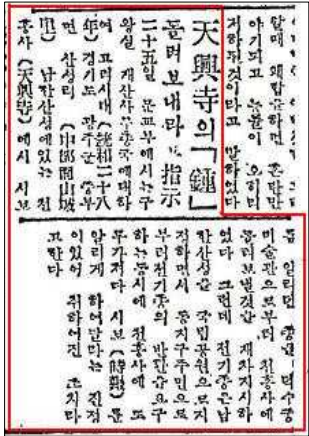


그림 6. 조선일보 (자료: 1956년 7월 26일자 신문)

3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의 종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보면 원래 고려 태조 4
년(921년), 천안시 성거산 밑에 위치하던 천흥사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천흥사가 폐사되면서, 남한산성으로 이전되었고, 이왕가
박물관을 거쳐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다. 1910년에
‘이왕가박물관’으로 알려진 ‘어원박물관(창경원)’이 천흥사 동
종을 보관하였고, 그 후 1938년에 덕수궁 안에 건립된 ‘이왕가
미술관’으로 다시 이전되었다가 해방 이후 이름을 고친 ‘덕수궁
미술관’이 소장, 1969년 5월 이 미술관의 유물들이 국립박물관
에 일괄 인수될 때 천흥사 동종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카드에 광주군 남한산성 종루에서 전래
되었다는 내용과 명치 43년(1910년) 쿠스메로부터 구입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산성에 위치하던 鐘이 일본
인 요시다 쿠스메의 손에 들어간 경위는 알 수 없다.

<조선일보> 1956년 7월 26일자 신문을 보면 이왕가박물관에
있는 천흥사종을 천흥사에 돌려보내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
는 것으로 보아 종의 반환 진정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종각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남한산성 종각의 위치를 살펴보면 주민들 사이에 오래 전부
터 로터리 부근을 종로거리로 불리고 있다. 2000년도에 발간된
‘남한산성 문화유적’ 보고서에 ‘산성로터리에서 북문 쪽으로 향



그림 3. 한홍엽(1909)



그림 4. 광주부 읍지

하는 갈림길의 동편에 있다. 이곳은 현재 백제장 음식점 주차장인데, 일제 강점기 초까지만 해도 종각건물이 남아 있었다. 종각은 조선시대에 관청에서 종을 쳐 성안의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던 곳이다. 구 도로에 있어서 종각이 세워졌던 곳은 산성의 동서남북 4대문과 행궁으로 통하는 길의 교차점으로써 산성의 가로망에 의한 중심지가 되며, 그 당시는 이곳에 여섯 칸의 종각 건물이 있었고, 여기에 대종이 걸려 있었으므로 이 일대를 종로거리라고 불렀다. 지금은 종각 건물이나 대종의 행방도 알 수 없거니와, 지명은 산성 로터리로 바뀌었으며, 로터리 중앙에 종각표지석 만이 서 있다.

그러나 남한산성 종의 이왕가박물관으로 이전,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종각의 흔적은 사라졌으며, 종각을 복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정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문화재의 복원을 위하여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여 지표조사 후 원래의 정확한 위치를 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래 부지는 로터리로 바뀌었고, 도로 어느 부분에 종각이 있었는지 지금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고지도는 우리의 선조들이 측량이 된 정확한 거리 감각을 갖지 않은 채 주위환경을 인식 그대로 그린 것이므로 정량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기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그 자체는 아니나, 그린 사람의 당시 환경에 대한 공간인식이 진솔하게 담겨져 있어 현대의 인지도와 같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이것의 분석에서 많은 원형적 근거가 도출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지도는 남한산성의 고지도 중 종각이 그려져 있는 '1872년 지방지도 광주전도', '해동지도 광주부', '해동지도 남한산성도', '지승광주부', '남한산성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옛길을 추정하기 위하여 1912년 일제 강점기의 지적원도와 1918년 광복이전 지형도를 분석하였다.

4. 고지도 분석

1) 1872년 지방지도 광주전도²⁾

지형 및 가로망과 수계가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종각을 비롯하여 주요 건물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종각은 丁자형 가로망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종각의 규모는 눈으로 가늠하기 어려우나 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2) 해동지도 광주부해동지도³⁾

수계와 가로망, 주요 건물들이 이 비교적 잘 표현되어 있다. 종각의 위치가 행궁권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방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3) 해동지도 남한산성⁴⁾

18세기 후반 제작된 지도로, 가로망과 수계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종각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건물 지붕형태가 팔작 지붕 혹은 우진각지붕이라는 것과 가로망에서 북서쪽 방

향에 위치하여 행궁의 권역에 들어가 있으며, 방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4) 지승 광주부⁵⁾

수계는 표시되어 있으나 가로망이 표시되지 않으며, 건물들이 밀집하여 표현되어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종



그림 7. 1872년 지방지도 광주전도



그림 8. 해동지도 광주부해동지도



그림 9. 해동지도 남한산성

각이 행궁의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각의 향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5) 남한산성도⁶⁾

현존 남한산성 고지도 중 가장 상세한 지도로 주요 건물들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져 있고, 가로망의 표현이 잘 되어 있다. 종각의 위치는 현 백제장의 주차장 자리로 추정되나, 입면을 누어서 그리는 기법 상 지금의 오로지 자리로도 추정할 수도 있다. 종각의 규모는 전면 세 칸의 팔작지붕 혹은 우진각지붕 형태이며, 동쪽을 향하고 있다.

6) 1912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⁷⁾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옛 지적원도 가운데 1912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를 토대로 현재의 로터리 체계와는 다른 옛길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 도로는 산성의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터널이 건설되는 등 자동차 중심의 도로 체계로 바뀌면서 로터리 형태로 바뀐 것이다. 추후 행궁과 종각 복원 시 옛길을 복원하여 기존 산성마을 경관을 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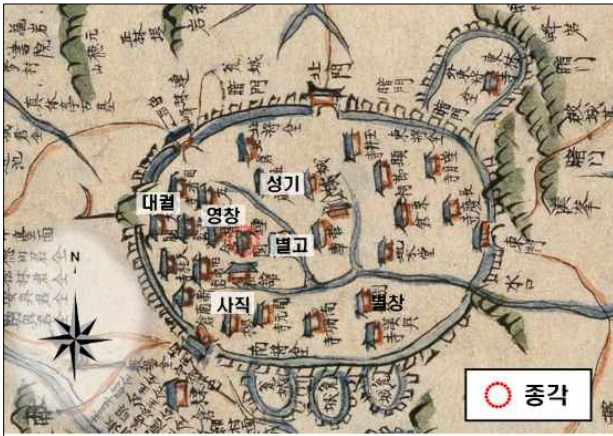


그림 10. 지승 광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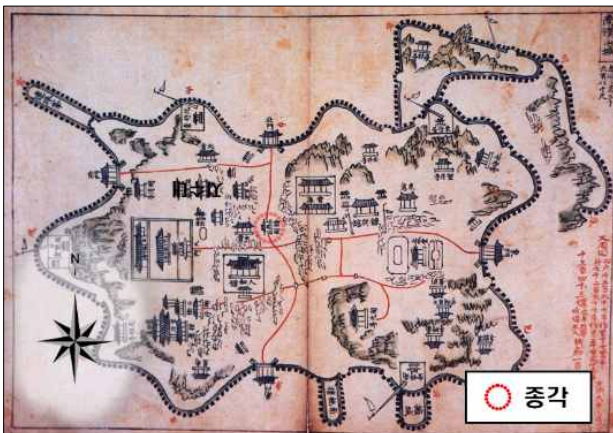


그림 11. 남한산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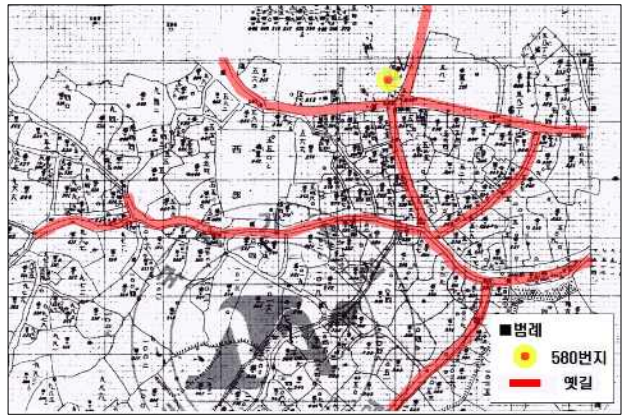


그림 12. 1912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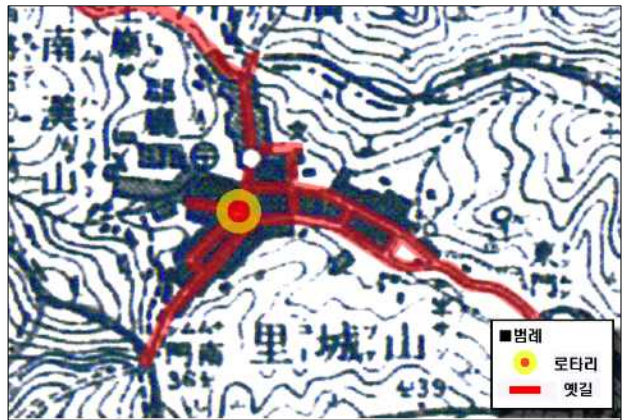


그림 13. 1918년 광복이전 지형도

7) 1918년 광복이전 지형도

1918년 광복 이전 지형도를 살펴보면 산성 로터리 주변이 Y형 도로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도로 주변에 산성 마을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 광주전도’, ‘해동지도 광주부’, ‘해동지도남한산성도’, ‘지승광주부’, ‘남한산성도’, ‘1912년지적도’와 ‘1918년 지형도’를 분석한 결과, 행궁 관아거리에서 동문 쪽으로 직선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문 방향으로 가는 길과 남문 방향에서 오는 길이 종각거리에서 만나므로 정확한 사거리는 아니나 종각 주위가 사거리 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문에서 종각거리를 거치지 않고 동문 쪽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각의 위치는 사거리에서 행궁 권역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오로지 찾집 쪽이었는데 아니면 산성학교 쪽, 즉 지금의 백제장 주차장 쪽이었는데는 명확하지 않다. ‘남한산성 문화유적(2000)’ 보고서에 의하면 종각지는 백제장의 주차장 지역이라 언급되어 있으나, 고지도 분석 결과, 종각의 위치는 로터리 주변 백제장 주차장 부지가 1곳(광주전도), 백제장이라 추정되나 그림 상 걸쳐 있는 지도가 1곳(남한산성도), 오로지 찾집 쪽이 2곳(해동지도 남한산성도, 지승 광주부)으로 분석되었다.

종각의 모양은 팔각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으로 추정되며, 5개의 지도 모두 사모지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향은 동향이 3곳, 남향이 2곳인 것으로 보아 가로 세로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남한산성 종각 복원을 위하여 원래 남한산성 종이 있던 종각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조선시대 남한산성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천홍사 종은 어떠한 종이었으며, 언제 어떻게 남한산성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남한산성의 자료가 있는 각종 문헌과 보고서, 우리나라 범종에 관한 서적과 인터넷 자료, 종각이 표시된 각종 고지도, 5회 이상의 현장조사,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종각의 위치는 행궁권역에 속하는 오로지 찾집 방향과 산성초교 쪽의 지금의 백제장 주차장 부근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지점은 주변의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종의 제원은 조선시대 남한산성에서 주민과 함께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천안의 천홍사 종이 남한산성 종의 제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천홍사 종은 우리나라 4대 종의 하나로 꼽히는 아름다운 종이므로 종각을 복원할 경우 천홍사종의 예술성과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명문을 새겨 천홍사 종에 버금가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각의 모양은 지도의 분석 결과, 팔각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으로 추정되며, 향은 행궁의 향을 고려하여 동향이 바람직하며, 규모는 동쪽이 3칸, 남쪽이 2칸으로 하며, 동쪽 3칸 중 가운데 어칸에 비하여 양옆의 협칸을 적게 하여 동쪽과 남쪽의 차이가 거의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경관의 복원이란 이미 상황이 많아 바뀌었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역사경관의 복원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이다. 남한산성 종각 복원 역시 남한산성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더 나가 역사전통경관 복원이라는 과제 이외에도 종각 주변에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남한산성 주민의 생활과 남한산성 방문객 모두의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한홍엽(韓紅葉)>(탁지부건축소, 1909)에 수록된 남한산성 사진은 동경제국대학 건축과 교수인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일행이 탁지부건축소의 촉탁을 받아 1909년 9월부터 그해 12월에 걸쳐 서울, 광주, 양주, 수원, 개성 일대 동지를 두루 고적조사를 할 때에 채록된 것의 하나이다.
- 주 2) 광주부 산성지역(<http://kyujanggak.snu.ac.kr>)서울대학교 소장
- 주 3) 1872년지방지도광주전도산성지역(<http://kyujanggak.snu.ac.kr>) 서울대학교 소장
- 주 4) 해동지도 남한산성 산성지역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http://kyujanggak.snu.ac.kr>)
- 주 5) 지승 광주부 산성지역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http://kyujanggak.snu.ac.kr>)
- 주 6) 남한산성도(영남대학교 소장)
- 주 7) 1912년 광복이전 지적원도

인용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1996). 한국의 범종.
2. 박동해(2006). 범종(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엄.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서 5). 파주: 한길아트.
3. 광주군(2000). 남한산성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4. 경기관광공사(2008).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 브랜드 및 마케팅 방향연구.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5. 경기농림진흥재단(2000). 남한산성종합발전방안수립연구. 경기도.
6. 경기농림진흥재단(2009). 남한산성 도립공원 증장기 발전전략. 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7. 경기문화재단(2002). 남한행궁권역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주)신화건설.
8. 박동석(2007). 문화재 주변지역 경관 보존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 화성을 사례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서울대학교규장각고지도 <http://kyujanggak.snu.ac.kr/>
10. 숲과 역사가 살아 있는 남한산성(2008).
11. 염영하(1991). 한국의 종.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2. 범종(1989). 서울: 대원사(빛깔있는 책들).
13. 조선고적도보 7권.
14. 조의영(2005). 남한산성 문화재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연구. 관광 경영학 연구.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권.
16. 광주시(2007). 광주비전 2020 기본계획.
17. 이상화, 지윤의, 김효정, 송호경(2007). 남한산성 북사면의 산림식생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학술대회지.
18. 탁지부 건축소(1919). 한홍엽(韓紅葉).

원고접수: 2009년 11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12월 10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